



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, 범부처가 함께 돕는다

...국민참여 가족소통 프로그램 7월부터 단계적 추진
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, 첫 관계부처 회의 주재
- 7월부터 ‘쉽고 즐거운 이벤트’로 가족 교육제공, 정책·서비스 인지도 제고
- 「정부24」에 ‘가족 소통교육’ 통합페이지 구축,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- 기업·대학·의료기관·지자체와 협력해 “가족과 대화가 있는 삶” 확산

□ 청년과 부부들이 결혼과 출산,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예방하고,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가 구축된다.

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(이하 “저고위”)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*를 열고, 국민참여형 ‘가족소통교육’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.

* 성평등가족부, 교육부,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, 고용노동부,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 참석

○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양육과 건강한 부부관계 및 역할에 대해 “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”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.

□ 이에 정부는 7월부터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와 이벤트를 시작으로, 부처별 프로그램을 정부24, 고용24 등 정부내 플랫폼 연계, 학부모은누리, 가정통신문 등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,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○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“결혼과 출산,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형성과 부모 역할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”라고 언급하며,

- “청년과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, 부모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흥미롭고 실용적인 콘텐츠를 확대하고, 교육 참여에 대한 국립중앙극장, 국립국악원 자체 공연 30% 할인 등 공공기관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“이번 대책은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가족관계·소통 프로그램을 국민 관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·확대하는 것”이라며, 정보 접근성 개선,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 강화,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통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.

□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.

① 국민참여 확산 위한 ‘가족관계·소통 프로그램 묶임’ 즉시 추진

- 가족교육 서비스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해 시민 홍보·참여형 SNS 해쉬태그 인증 인센티브(7월)
 - * 매월 셋째주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 ‘가족관계교육 주간’으로 신규 운영하고(7월~), 교육참여 인증 SNS 해쉬태그 인증 이벤트 실시
- 온라인 참여형 테스트 ‘긍정양육 자가진단’ 콘텐츠 개발·운영 및 결과인증 등 이벤트 실시(7월)
 - * 부모가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양육상황 활용 문항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활성화
- 「학부모는 처음이라*」 온라인 영상(7종, 총 35개) 중 1개 과정 이상을 이수한 학부모에게 경품 제공 등 이벤트 실시(교육부, ~8월)
 - *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7개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의 기초정보·역할·실천방법 등 수록

② 부처별 정보 통합 및 프로그램 참여 접근성 제고

- 청년이 결혼·임신·출산 등 생애주기별 교육 정보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「청년·가족 소통교육」 통합 페이지 구축*
 - * 가족관계(성평등부), 임신·출산(복지부), 양육·학업(교육부) 등 다양한 교육영역 통합하여 구성('26.上, 성평등부), 개인정보기반 맞춤형 정보제공(~'26., 행안부)
- 각종 지원사업(아동수당, 육아휴직 등) 신청 과정에 관련 교육정보 연계, 「(가칭)모두의 소통교육」(1분 내외) 홍보영상 상영 등 정책 접근성 제고

③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계·소통 프로그램 확대

- (공공) 가족센터·보건소·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관계·소통 교육 확대, 누구나 편리하도록 찾아가는 교육 강화
- (민간) 평생교육이용권 등을 활용해 민간 전문기관의 관계·소통 교육 참여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확대
- (대학) 교과·비교과 프로그램 운영·지원을 통해 의사소통, 대인관계, 사회성 역량교육 강화, 대학생의 건강한 관계 형성 지원

④ 교육 참여자와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 및 사회적 인식변화 노력 등 '가족과 대화가 있는 삶'을 위한 사회문화 확산

- (개인) 부부(부모)교육 이수자에게 국립문화시설(국립중앙극장, 국립국악원) 자체공연 할인, 자연휴양림 등 공공서비스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
- (기업) 직원의 부부(부모)교육 참여를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 평가에서 가점 부여
- 사회적 인식변화 위해 각종 체험그룹, 간담회, 포럼회 추진 등과 민간(기업·대학·의료기관 등)·공공기관과의 협업 확대 및 홍보 강화

□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각 분야별 지원 방향을 밝혔다.

- 성평등가족부는 가족관계교육 주간 운영과 참여형 홍보·인센티브를 통해 교육 참여를 확대('26.下)하고, 생애주기·가족특성별 콘텐츠 개발, 가족센터 기반 찾아가는 교육 및 청년·예비부부 대상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('27.~)이다.
- 교육부는 어린이집·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찾아가는 부모교육, 예비 학부모 교육, 양육 상담 등을 통해 부모·가족관계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각급 기관·학교에 부모교육 콘텐츠 가정통신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('26.下)한다. 또한 청년의 관계·소통 역량 향상을 위해 각 대학의 강좌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, 평생교육이용권을 활용한 관련 강좌 수강도 지원할 계획이다.

- 보건복지부는 임신·출산기부터 청년·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**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**(‘26.下), 시·도 100인의 아빠단 외 시·군·구 단위 또는 지역 특성(산단 등)을 반영한 **아빠단 확대 운영 검토**(‘27.下), **긍정양육 교육이 활성화**(‘26.下)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 - 행정안전부는 **정부24**를 중심으로 청년·가족 소통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(~’26.)하여 국민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쉽게 찾고 이용하도록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.
 - 고용노동부는 교육 참여가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(‘27.上), 근로자·사업주·청년층 대상 **맞춤형 안내**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(‘26.下)이다.
 -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부(부모) 교육 참여자에 **문화혜택**(국립중앙극장, 국립국악원 자체 공연 30% 할인) 인센티브를 제공(‘26.下)하고, KTV·정부 SNS·전광판·정책간행물 등을 활용한 대국민 ‘소통교육’ 홍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(‘26.下)이다.
-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“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들이 결혼·임신·출산 등 생애주기별 관계·소통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,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참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- 또한, “이번 대책은 부처별로 추진해 온 정책을 국민 관점에서 연결하고, 청년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부처 협업의 출발점”이라고 평가하면서
 - 이어 “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러한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부처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여,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은 높이는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【별첨】 가족(청년) 관계·소통 역량 지원방안

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부서 | <총괄>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총괄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혜인 (02-2100-1241) |
| | | 담당자 | 전문위원 | 지성화 (02-2100-1244) |
| | <협조>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윤아 (02-2100-634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전병길 (02-2100-6323) |
| | <협조>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최영준 (044-202-339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박성진 (044-202-3391) |
| | <협조>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현정 (044-203-6612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오연희 (044-203-6690) |
| | <협조>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정현관 (044-205-6405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권완필 (044-205-2917) |
| | <협조>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정현 (044-202-7496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위수환 (044-202-7503) |
| | <협조>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강연경 (044-203-221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우희정 (044-203-2218) |



1 검토 배경

- 핵가족화·맞벌이·1인 가구* 증가 등으로 가족의 상호돌봄 구조가 다양화되고 관계·역할 학습 기회는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
 - * 연도별 1인 가구 비중(%) ('00)15.5 ('10)23.9 ('20)31.7 ('22)34.0 ('23)35.5 ('24)36.1
- 건강한 관계 경험은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 개선과 긍정적인 가족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
-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례·정보를 비교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환경 조성, 실수요자의 관심사 중심의 교육 설계 등 적극 활용
- ⇒ 가족(청년) 관계·소통 교육을 즐겁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범업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 협업·제도개선 추진

2 기존 정책(부부·부모교육) 문제점

- 각 부처별 부부·부모교육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청년·신혼기의 관계 형성 및 갈등 조정, 부모 역할 등에 대한 사전적 교육, 경험 기회 부족
 - 청년·부부 대상 관계·부모 교육 참여율이 낮음
 - 현재 가족센터 외에는 예비부부·신혼 단계의 관계 탐색 기회 부족
 - 부부·부모교육 제공 인프라 접근성이 제한적
 - 교육 콘텐츠와 플랫폼이 분산(가족센터, 육아종합지원센터, 학부모교육센터 등)되어 있고, 이용자가 직접 탐색해야 하므로 서비스 체감도가 낮음
 - 야간·주말 등 남성·맞벌이 부부에게 맞춘 시간표·방식 부족
 -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인증·관리시스템 미흡
 - 교육내용·강사 기준·운영 방식 등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교육의 질 편차 발생
 - 가족 형성 및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부족
 - 청년층 대상 홍보·체험 기회가 제한적이며, 기업·대학 등 연계도 미흡

3

부처별 협업 강화 및 제도 개선 상세내용

< 기본방향 >

- ◆ '사후 상담' 중심에서 '생애주기별 사전교육' 중심으로 전환
[청년기, 결혼준비·신혼기, 임신·출산기, 영유아기, 아동·청소년기 등]
- 수요자 친화적 환경 조성 : "명칭 변경 및 원스탑 정보 제공"
-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질 관리 추진
- 교육 참여 연계 인센티브 제공
- 국가·지자체·민간 협업 등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 강화

1 수요자 친화적 환경 조성

① [명칭 변경] 부부·부모 교육 → '파트너십 스킬랩', '생애설계 클래스' 등

- 기존 부부·부모 등 대상 중심, 도덕적·훈육적 어감의 '교육' 명칭에서 '관계, 생애 설계' 등의 생활 기술형, 내용 중심 명칭으로 변경

② [원스탑 정보 제공] 정부24에 '청년·가족 소통교육' 페이지 구축

- 각 부처의 온·오프라인 교육 현황을 '정부24'를 통해 제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

① '모두의 소통교육' 안내자료 메뉴 구성안 마련('26.上, 성평등부)

- 가족관계(성평등부), 임신·출산(복지부), 양육·학업(교육부) 등 다양한 교육 영역을 통합하여 구성

② 정부24 통해 종합 안내(~'26., 행안부) : 개인정보기반 맞춤형 정보제공 추진

- 아동수당, 육아휴직 등 개별 사업과 정부24간 연결* 추진

* 주기적 서비스 현행화, 로그인 편의 위한 통합로그인(Any-ID) 설치 필요('26.下~)

③ [정보 점점 확대] 각종 지원금·서비스 신청 화면에 정부24의

「^(가칭)모두의 소통교육」(1분 내외) 홍보영상 상영으로 교육 인지도 향상

②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확대 및 질 관리 추진

① [맞춤형 교육 콘텐츠 확대]

- (공공섹터) 가족센터 등 기존 교육의 수요자 맞춤형 확대·개편

▲ (성평등부) '26년 가족센터 부모교육 확대(수요자 맞춤형 가족소통교육, 찾아가는 가족소통교육 활성화), '27년 청년대상 가족관계 교육(가족소통 등) 확대

- (맞춤형 교육) 주말·야간, 공동육아나눔터, 기업 등 찾아가는 가족소통교육 확대
- (입소형 부부캠프 시범사업) 인구 20만 이상 98개 시군구 대상 '27년 10개소 시범운영 후 확대 검토
- (다회기형 교육) 캠프형 참여 어려운 수요자 대상 전국 가족센터(244개소) 운영('27년~)

▲ (복지부)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참여 보건소 및 100인의 아빠단 확대 등

- (생애초기 건강관리) 사업참여 보건소 ('21) 29 → ('23) 59 → ('25) 73 → ('26) 73 → ('27) 73개 이상 확대
- (100인의 아빠단) 현재 시·도 각 100명 선발·운영 중 → 시군구(인구감소지역 우선), 기업·산단 등 확대 검토

▲ (교육부) 영유아 공통부모교육, 찾아가는 교육, 거점어린이집 등 운영, 학령기 맞춤형 교육 확대, 「학부모는 처음이라」 학교 현장 안내, EBS 다큐·학부모 상담 영상제작 등

<영유아>

- (공통부모교육) 교육 참여 인원 확대 및 실시간 비대면 활용 등 추진으로 공통부모교육 참여 기회 확대 ('26.下~)
- (찾아가는 교육)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교육 외 교육·보육기관, 공공·민간기관 등 직장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운영으로 편의성 제고('26.上~)
- (거점 어린이집)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점 어린이집 '육아심표'를 선정하여 부모 교육·체험 등 제공('26.上~)

<학령기>

- (학교현장안내) 「학부모는 처음이라*」(총 35종) 가이드북을 연계하여 제작된 온라인 영상을 가정통신문 샘플을 통해 각 단위 학교에 배포 및 홍보('26.上~)
*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7개 발달단계에 따라 기초정보·역할·실천 방법 등 수록
- (대면교육 강화) 학부모지원센터(79개)별 학부모교육 관련 강사풀 확대('25년 900명→ '26.1월기준 1,165명), 센터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·상담 등 확대('26.下~)
- (부모교육 대중화) 가정-학교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EBS다큐 (2부작, '26.12~'27.1 방영예정) 및 상담 전문가가 학부모 고민에 맞춤형 방안 제시하는 영상(2종) 제작('26.下~)

- **(민간기관 등 바우처)** 평생교육이용권, 지자체 사회서비스 사업 등 활용 취약계층 등에서 민간·공공기관의 전문강좌 수강 지원

▲ **(평생교육이용권)** 청년, 신혼(예비)부부, 부모 등에게 **관계·소통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*** 수강 지원 기반 마련

* 지역평생학습관, 평생교육시설, 복지관 등에서 개설된 강좌 안내(www.lllcard.kr)

▲ **(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*)** 가족관계 다양화 등에 대응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**표준모델로 「가족기능 회복지원서비스」** 도입 검토

*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표준모델 제시,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기획·운영
· '26년 1,966억원(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), '25년 26만명 지원(프로그램별 지원금액 상이)

• **가족지원서비스 수요 ('23년 가족실태조사 연구)**

- ① 가족관계 상담(15.9%, '20년 대비 +9.8%p), ② 생애주기별 부부교육(13.6%), ③ 임신·출산 및 자녀양육방법 교육상담 지원(12.2%, '20년 대비 +2.3%p)

- **(대학)** '대학생 마음 건강 지원사업^(신규사업) 추진을 통해 관계·소통 역량 프로그램 개발, 사례 공유 등 대학의 관계 소통 교육 지원 기반 구축

* 대학생 마음건강(관계·소통역량 포함) 진단검사도구 및 매뉴얼 개발

▲ 학생의 자기 이해 및 대인 관계 역량 향상, 사회성 개발을 위한 **교과·비교과 프로그램*** 개발·운영

* 신입생 필수 의사소통·대인 관계(집단상담 등) 교양과목, 자원봉사 등 교과·비교과목 개발

▲ **대학재정지원사업(지역혁신사업(Anchor))** 내에서 지자체 사업모델 (정책 메뉴판) 형태로, **관계·소통 역량 강화 등 추진 검토**

- **(콘텐츠 보강)** 결혼·동거, 임신·출산, 영·유아기, 학령기, 청년·성년기 등 생애 단계 맞춤형 관계 역량 증진 콘텐츠 단계적(1~3차) 확보

▲ (1단계) 예비부부·부모, 가족특성별 I(경계선, 고위기 청소년 등)('27)

▲ (2단계) 가족특성별 II(한부모 등), 가족관계 향상 교육('28)

▲ (3단계) 가족특성별 III(조손가족 등), 가족관계 향상 교육('29)

② [「정부24」 교육 콘텐츠 질 관리 추진]

- 「정부24」에 안내할 가족관계교육 콘텐츠에 대한 부(부모)교육 운영 부처·기관 간 간담회, 협의 등 부처별 공유
- 부처별 신규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안내

③ 교육 참여 연계 인센티브 제공

- 부부(부모) 교육을 받은 개인,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대해 정부 인증, 각종 시설 이용 편의 제공

- **(개인)** 국립문화시설, 자연휴양림 등의 **할인 혜택** 제공

- **(문체부)** 국립극장·국립국악원 자체 공연 관람시 할인(30%) 제공
- **(교육부)** 국립중앙과학관('25.9~), 국립생태원('25.10~)외 자연휴양림 무료입장(산림청, '26.下) 등 체험처 제공

- **(기업)** **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**(노동부), **가족친화인증기업**(성평등부) 등 선정시 기업의 부부(부모)교육 이수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

- **(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)** '부부(부모) 교육 참여 노력(정성)' 선정지표 가점 반영
- **(가족친화인증기업)** '가족친화·성평등 조직문화 직장교육 실시(5점)' 가점부여

④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 노력 및 홍보 확대

- ① [**인식 변화**] 각종 체험그룹, 간담회, 포럼 등을 통한 인식변화* 및 민간(기업·대학·의료기관 등)·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**

* (예시) **100인의 아빠단**(17개 시·도 각 100명), 현장의 목소리 릴레이 토크, 일본의 '디자인' 혼인신고서' 등 행정절차 개선, 각종 굿즈 등

** (예시) 가족친화인증기업(약 6,500개), 병원, 산후조리원, 대학 등

② [홍보] 각 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, 대학 등 교육 안내 및 홍보 강화

- (교육부) 교사, 학부모,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홍보·안내

- **(함께학교)** 전문가 상담코너 온라인 신청 시 교육 홍보영상(1분 내외) 노출 추진('26.下)
- **(연계 홍보)**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복지로 배너·리플릿 등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, 학부모온누리 콘텐츠 안내 (URL, QR 등), '베이비페어' 참여
- **(대학·K-MOOC)** 부모교육 관련 자료 대학학사누리집을 통해 안내·배포, K-MOOC 부모교육 관련 강좌를 플랫폼 추천강좌로 안내*
* 관계·소통 강좌를 꾸러미(배너 등)로 제공하는 등 강좌 접근성 제고

- (노동부) 일가정양립, 기업지원금 수혜대상 개인·기업에게 정보 제공

- **(고용24)** 회원 중 정보수신 既 동의자 대상 이메일·SMS·알림톡 등을 통해 지원제도 신청단계 부모교육 정보 제공 및 참여 안내 ('26.6월~)
- **(모성보호알리미)** 임신·출산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부모교육 안내 ('26.6월~)
- **(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등 현장홍보 사업)** 부모교육 안내 병행 ('26.6월~)
- **(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)** 대학생 대상 부부(부모) 교육 홍보자료 배치 ('26.6월~)

- (성평등부) 민관협력, 카카오톡, 가족친화기업 설명회 등 홍보 확대

- **(민·관 포럼)** '부모교육 포럼'을 통한 가족교육 중요성 확산 ('26.5월)
- **(온라인·모바일)** SNS, 문자, 홈페이지 등 연계를 통한 부모교육 안내 (분기별)
- **(가족친화기업 관심 기업)** 인증 준비 기관 담당자 대상 설명회 시 부모교육 안내 ('26.4.~5월)

- (복지부·국조실) 산부인과 등 병원, 청년센터 등 생활 접점을 통한 홍보 추진

- (문체부) KTV, 정부 SNS·전광판 등 통해 '소통교육' 대국민 홍보 추진

- (지자체) 아동수당, 혼인신고, 출생신고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시 안내

참고 1

부처별 · 협업 과제 및 추진계획

| 주요 과제 | 소관 부처 | 추진 기한 |
|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• 제1차 인구정책기본계획에 주요내용 반영 | 저고위 | '26.7~8월 |
| • 정부24 '청년·가족 소통교육' 페이지 구축 - 각종 지원금 신청화면에 홍보영상 상영 | 행안부 각부처 | '26.下 |
| • 가족센터(전국 244개) 교육 확대 - 주말, 야간, 기업 등 찾아가는 교육 | 성평등부 | '26.下 |
| • 부부(부모) 교육 참여·퀴즈 이벤트 | | '26.下 |
| • 생애 단계별 교육 콘텐츠 확대(1~3단계) | | '27~'29 |
| • 「정부24」 교육 콘텐츠 질 관리 추진 | | '27.上 |
| • 가족센터 청년대상 교육확대, 입소형 캠프(시범) | | '27.上 |
| • 「학부모는 처음이라」 온라인 배포('26.5월) | | '26.上 |
| • 육아종합지원센터(130개)·시도학부모지원센터(79개) 등 찾아가는 교육 확대 | 교육부 | '26.下 |
| • 대학, K-MOOC 공개강좌 홍보 확대 | | '26.下 |
| • 평생교육이용권 활용, 청년·부부교육 지원 | | '27.上 |
| • 대학생 마음건강 사업(소통교육) 추진 | | '27.上 |
| •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확대 | | '26.上 |
| • 100인의 아빠단 확대 | 복지부 | '27.下 |
| • 긍정 양육 교육 활성화 | | '26.下 |
| 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「가족기능 회복지원서비스」 표준모델 도입 | | '27.上 |
| •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(노동부), 가족친화인증기업(성평등부) 등 부부(부모) 교육 이수율 높은 기업 가점 부여 | 노동부 성평등부 | '27.上 |
| • 각종 공공시설 이용권, 할인권 제공·연계 | 문체·교육 ·성평등부 | '26.下 |
| • 부처별 SNS, 전광판, 간담회 등 홍보 강화 | 저고위 각부처 | '26.下 |
| • 민간(기업·대학·의료기관 등)·공공기관(청년센터)·지자체 등과 협업 | 저고위 각부처 | '26.下 |